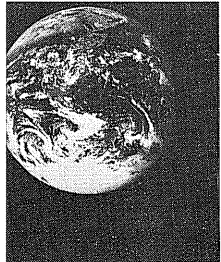




성도의 밭 1979

CCNY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7
1979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너크

차 례

절대적인 진리.....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

불타는 떨기나무.....로버트 이 맥기..... 11

성신의 은사.....마크 이 피터슨 장로..... 16

질의 응답..... 18

아우보를 위한 샷스.....실리더 브라운..... 21

어떻게, 왜 그럴까.....케이 엘 하베이..... 24

신의를 지키는

친구의 우정.....도러시 리온..... 26

모든 것에 고장이 날 때 로버트 이 웰즈 장로..... 29

오림포스호를 타고.....윌리엄 하틀리..... 32

서부 이동(1844-47).....글렌 엠 레너드..... 36

지역 지도자 메시지.....에프 레이 하킨스.....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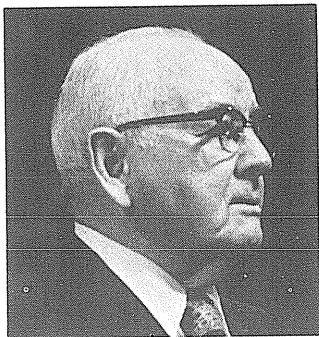
지역 소식..... 4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68호, 제15권 제7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9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절대적인 진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얼마 전 나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많은 내용이 요즈음 내 마음에 떠올라 나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그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그 관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내면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존 형제님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형제님의 반대와 논쟁은 나로 하여금 큰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형제님에게 형제님의 뜻에 반해서 확신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형제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몇 가지 중요한 진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과 나의 말이 참된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소

망을 갖고 경청하신다면 내가 형제님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령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형제님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기본 율법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반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모세서 7:2)

나는 오랜 시간을 잠자지 않고 깨어 깊이 생각하며, 내가 정확하게 말하고 형제님이 나의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무릎을 꿇고 열렬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참된 생활 방법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인간이 먹어야 하는 것에 관한 규칙은 나의 생애 동안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해마다 변경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세상은 한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성운의 용해된 덩어리라고 가르쳤으며, 그 후의 많은 과학자는 세상이 선회하는 먼지가 응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발표된 많은 진보된 사상은 진리가 발견됨에 따라 진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천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며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는 인간의 견해로 인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물질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 줌에 따라 지금까지 받아들여졌던 과학의 특정한 사상은 버림받은 것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으로는 진리인 것같이 보이는 이러한 진리들 중에 어떤 것은 수세기 동안 완강하게 그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진지한 과학의 탐구가 오직 진리의 출발점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반면에 계시로 밝혀진 사실은 우리에게 출발점으로서 특정한 절대적인 진리를 알려 주어 우리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구는 둥근 것입니다. 만일 40억에 달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구가 평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쟁도 그

것을 변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량이 있는 물질은 대기 중에서 떠 있으려 하지 않으며 놓아버리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법칙은 낮은 법칙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법칙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가르침으로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압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비록 경험과 지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범위 안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성 93:30 참조) 위대한 예언자 야곱은 “영은 진리를 말하며…그러므로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며 장차 이를대로 이야기하나니”(야 4:13)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엘로힘은 살아 계십니다. 40억이나 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와 그의 족정과 권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살아 계십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부인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에 관계없이 살아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의 형상과 권세와 속성은 인간의 견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견해 하나만으로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창조주이

며 유일한 참된 삶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지식인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는 그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살아 계시며 그의 백성의 운명에 관하여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아무도 그 진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스위스의 시계공이 재료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주 사막의 모래에서 발견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스위스에 가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계공도 본 적이 없으며 시계가 제작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지나 경험에 전혀 관계 없이 시계공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계는 거짓말로 “시계공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진실로 겸손하다면 자신이 진리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다만 진리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저들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백만 명의 학자가 깊이 생각하여 그들의 지성으로 지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시계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는 여러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인하여 그 사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으며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논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만 명의 뛰어난 석학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 그라도 그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성취하고 달성하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완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이며 절대적인 계획, 즉 인간의 삶을 위한 계획을 상세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중요한 진리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형제님의 견해는 나의 견해와 같이 훌륭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나의 견해로서 형제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제님에게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형제님이 깨닫고 느끼며 이해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 자기자신을 호되게 꾸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때가 언젠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자동적으로 다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종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개인의 의로움과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이를 놓아 두신 범위 안에서 독립되어 있느니라.”(교성 93: 30)고 말씀하셨습니

다. 지구의 구조에 대해 많은 진리를 발견한 어떤 지질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 말씀하신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하나의 사실만 명백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쌓아 나갈 기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지성만으로 하나님이나 그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탐구하고 있는 영역을 지배하는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연관공이 되기 위해서는 배관에 관한 법칙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는 응력과 변형력, 관이 열어 붙는 온도, 증기와 뜨거운 물과 팽창과 수축 등에 관한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관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나 자녀를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과 조화있게 생활하는 일에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기 업무에 가장 능한 자이지만 전기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료품을 사고 팔고 하는 일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나 다리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소 폭탄에 관한 위대한 권위자이지만 은행 업무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시계 제작에 관한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성 법칙의 창시자이지만 모든 법칙을 제정하신 창조주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인인든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생각과 노력을 요하는 지식이라 할 지라도 어떤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10여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또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반세기가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영적인 심오한 것을 지배하는 법칙에 따라 필요한 실험과 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심오한 것을 통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터무니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명 인사가 회견을 갖고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사들이 세상 사람을 위해 삶의 방법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많은 경영인, 정치가, 대학교수 또는 도박 클럽의 경영주는 자신이 특정한 분야에서 자기 이웃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사업과 계획을 지배하는 율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모르며, 하나님의 사업이나 계획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물질계와 꼭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영계는 물질계의 법칙으로써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제님은 신학연구원 중등부에서 발전기를 제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물리 실험실에서 영적인 것에 관한 특정한 진리도 배우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영적인 실험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며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법

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과학자가 금속이나 산이나 기타 원소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러한 진리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관공이든 은행가이든, 농부이든 그러한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직업은 이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에 관해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조직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영의 상태에서 너희의 능력이 미칠 수 있는 때까지 발전하였느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육체를 필요로 하느니라. 따라서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느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것을 극복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원소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조직하여 지구가 있게 하며 지구위에 식물과 동물이 살게 하고 너희가 지구로 내려가도록 할 것이니라. 이 지구가 바로 너희의 시험장이 될 것이니라. 우리는 너희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풍요로운 지구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진실함을 증거하고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맺으려 하노라. 만일

너희가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내가 마련해 주는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완전한 상태와 신의 상태에 이르도록 발전할 것에 동의한다면, 나는 살과 뼈의 육체뿐만 아니라 태양, 물, 숲, 금속, 흙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입고 거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로 가득 찬 풍요롭고 비옥한 지구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한 너희에게 적절하고 너희의 유익이 되는 모든 기쁨을 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 나감에 따라 결국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위에 언급된 가장 후한 제의를 감사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회를 얻어 지상의 부모에 의해 육체가 준비되어 있는 지구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험장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논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와같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의 실험과 연구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 나는 이번에는 애써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야담과 이브는 율법을 어겼으며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임한 변화, 곧 필멸의 상태에 관한 변화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가져 온 다른 음식이었을까요? 어쨌든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부여 넣어 주는 요소인 피는 그전에 우리의 몸을 순환하고 있던 매우 순수한 물질과 대체되었습니다. 그들과 우

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고 병에 걸리며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과 육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은 육체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영은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에는 살과 뼈로 다시 형성된 육체에 영원히 거하게 될 재결합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영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때 결합된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해시키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피가 전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순수한 물질이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육체가 불사불멸의 상태가 되게 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부활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속성(마리아의 아들)과 신성(하나님의 아들)을 둘다 소유하신 분이었으므로 육체를 지배하는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생명을 주셨으며 문자 그대로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로부터 생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극복하는 데 완전해짐으로써 다시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키우셨습니다. 사망은 그의 최후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망마저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가들은 이 진리를 논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의 사업을 행할 권능을 합당하

게 부여받은 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의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사람이 영원한 계획에 따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백성을 인도할 사도와 예언자 및 다른 역원으로 충실한 추종자들 가운데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는 그러한 역원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그의 진리를 가르치되 강요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본 율법은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범하는 잘못으로 인해 오는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조직에 관한 그의 계획을 완전하게 마련하셨고, 다스리는 원리와 교리를 주셨으며, 가르치고 의식을 집행하도록 그의 역원들에게 그의 중대한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종교 단체와 인간에 의해 제정된 그러한 종교 단체의 교리와 철학을 무시하시고는 그의 성스러운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대륙에 있는 갖가지 교리와 이론과 사이비 종교의 모든 가지가지가 그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참된 사실이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기 전에 아직 초창기 단계에 있는 그의 보잘 것 없는 작은 조직이 반대되는 철학을 가진 이리들과 장차 닥치게 될 무서운 핍박에 오래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국을 인도하고 세우도록 강인한 사도들과 다른 추종자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구세주께

서는 배도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원히 아셨습니다. 실제로 배도는 일어났습니다. 펄박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하였고 합니다.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권 소유자와 다른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뽑혀지고 실제의 잔혹한 행위에 의해 거의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진심으로 개심하지 않은 이교도인 통치자를 통해 기독교는 받아들여졌으며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교의 미신과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에 첨가되어 뒤섞이게 되었으며 드디어 교회가 확립한 교리와 의식은 바뀌고 모호해져서 다만 어렴풋이 진리와 비슷한 것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권능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순교하고 권능과 교리마저 거두어져 버렸으므로 세계는 암흑 시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상에서 얻을 수 없었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사 60:2)웠으며, 물질적인 면에서조차 별로 진보가 없었으며 영적인 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공허뿐이었습니다.

교리가 왜곡되고 신권은 거두어졌으며, 조직이 부패되고 지식은 사라졌으므로 또 다른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바와 같이 마침내 다시 진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결코 거두어지지 않을 날이 도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실족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와 복음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지옥의 모든 권세는 또다시 완전한 배도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이같은 회복은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의 예언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구세주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조직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충만하고 완전한 권능과 충만하고 완전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주어졌습니다.

이같이 19세기 초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사 29:4)이 세상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의 죄로 물들거나 인간의 거짓 철학으로 비뚤어지지 않았던 젊은 예언자가 회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예수님이 친히 진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기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진리의 작은 씨앗은 거짓의 산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신성이나 계시를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 조직은 어디에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기의 부패된 교리가 모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혼란이 널리 퍼졌으며 대부분의 세상 사람이 회복의 사업을 신랄하게 반대하였으며 회복된 진리가 최초로 전해질 때 “거짓 예언자”라고 의쳤습니다. 1830년에 6명으로 시작된 작은 조직은 짧은 기간에 4백만 명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현재 존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물론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인정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이며, 하나님을 위해 집행할 권능을 가지고 합당하게 조

직된 유일한 교회이며, 믿을 수 없는 권세를 얻도록 이끌어 주고 믿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도해 줄 전반적이고 종합적이며 참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논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둥근 모양과 같이 참되며, 중력과 같이 참되며, 태양의 반짝이는 빛과 같이 참되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진리처럼 명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며, 성역자들은 그것을 논박하려 하고 있으며, 지식인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성역자와 사제가 한 줌의 재가 되며, 식자가 무덤속에서 썩고 있을 때 진리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의기 양양하게 계속 존재할 것이며, 복음은 여전히 참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란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라.”(교성 93 : 24)고 정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실재하는 사실입니다. 불사불멸도 실재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실재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실재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의심한다고 해서 소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견해라고요?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견해는 법칙이나 절대적인 진리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견해는 결코 지구를 편평한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태양으

로 하여금 그 빛을 잃어버리도록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죽으시도록 할 수 없으며, 또는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그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와 같이 말한 이래 수백만 명이 던져 온 훌륭한 질문은 다 음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존재한다면 모든 조직 중에서 어느 조직이 참되고, 성스러우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십시오. 그러면 형제님은 이러한 사실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연구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가 열쇠입니다. 일단 형제님이 굴복하고 겸손해지며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후에는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그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형제님의 지식과 지혜에서 비롯된 모든 자만심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님의 혼란을 인정하며 스스로 겸손해지고 강한 자부심을 갖지 아니하며 스스로 성령의 가르침에 따르기로 순종하면 형제님은 배울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선입관을 완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형제님이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형제님에게 영적인 일에 관한 지식을 알려 주시리라는 것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열심히 탐구하고 구하며 상고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무수한 약속은 “또한 성신의 권세로서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 : 5)라는 말

로 모르나이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약속입니까.

나는 이 지구에서 과거에 살았으며, 현재 살고 있으며 또는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굴복할 날이 이르리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강제당하지 않은 굴복 곧 무조건적인 굴복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을 위한 그날은 언제 올까요? 오늘일까요? 20년 내에 이를까요? 2백년 후일까요? 아니면 2천년이나 1백만 년 후일까요? 과연 언제일까요? 다시 존 형제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형제님이 위대한 진리에 굴복한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형제님이 무한히 오래도록 진리의 힘과 압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세월보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은 형제님을 위해서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친한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자신에게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이란 없어. 여기서 나는 매일 배부르게 먹고 잠잘 수 있는 편한 곳을 갖고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속박된 이스라엘인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바다와 사막 너머에는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배부르게 먹으며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여가도 즐기며 문화도 갖고 발전도 이룩하며,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마음의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러한 노예의 상태를 더 좋아한다면 그는 참으로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빛과 암흑, 성장과 위축, 거인과 난장이, 자유와 속박, 영원과 하루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매우 겸손히 나는 형제님과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꼼꼼히 생각하기를 기원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진지한 마음과 소망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형제님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함을 형제님에게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님에게 엄한 경고를 드립니다. 형제님이 멀지 않은 미래에 심판대에 설때 비로소 내가 형제님의 영원한 복지를 염두에 두고 진리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로 형제님이 깊은 감명을 받도록 강한 설득력으로 형제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살아 있는 교회는 물론 교회 회원과 대표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 연 구하고 기도하면 빛을 받을 것이며, 그 빛은 암흑의 밤이 지나간 후에 새로운 날의 새벽처럼 형제님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교회의 도움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님이 이 문제를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형제님은 성

숙한 사람이며, 훌륭한 지성인이며,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데다 청소년기에 형제님의 생애에서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지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라 할지라도 이 지식을 형제님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랄 수도 없으며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깊게 참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만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님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이 간절한 권고와 경고를 저버리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님은 만일 내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형제님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형제님의 창조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에게서 인정과 승인을 받은 유일하고 완전하며 성스러운 영원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는 숲속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엘로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그 사실을 부인하느니보다는 오히려 자진해서 순교할 것을 택하겠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영광스러운 분을 보았으며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시현이 있은 후에 바울은 자신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프로그램인 복음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며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여생을 그것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았으며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후 그의 생명이 거두어지리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으므로 그는 영예롭게 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힘과 시간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마저 진리를 위해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영혼의 복지에 필요한 병고침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 그의 시대나 이 시대의 모든 현자와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은 영원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원의 보상은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여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형제님은 요셉 스미스, 바울,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또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진실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평범한 복된 말씀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입니다. >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의 아들도 살아 계십니다. 나는 확실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나의 혀와 입술로 마지막 힘을 다 기울여 기꺼이 이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꺼이 영원한 세계로 가서 나의 입술로 이 간증을 말하며 나의 하나님을 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에 대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불타는 떨기나무

로버트 이 맥기



내가 수년 전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물몬에 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나는 막연히 그들은 “서부의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개발에 공헌을 했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몬에 대한 나의 관심과 지식은 그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의 물몬 신자로 가득찬 이 주로 이사 와서 살게 된 것만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은 나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나는 성공회 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부친은 내가 일곱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어 그후 나는

비중파적인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나에게는 다른 교회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후에야 나는 여러 다른 교회에 가보기도 하여 그러한 교회에서도 훌륭한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생활해 가면서 아내와 나는 물몬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은근히 선의의 물몬들이 나를 개종시키기 위해 몰려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물몬들은 매우 친절했으나 그들의 주장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으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나는 덕 라이스너를 만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는 내가 새로운 직업 분야의 훈련을 받는 동안 나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는 열성적인 물론이였으며 내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의 헌신은 조금도 빈틈없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절하게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도 물론에 대해 조금 알았습니다. 전에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고, 교회의 행정과 신앙에 대해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된 것은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나 다메섹으로 가는 죄인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추론했습니다. 일단 확신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수호자가 되며 가장 유능한 건축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개종은 적어도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극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유태에서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는 유태 특히 유태에서 사귄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도 물론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 번호부를 찾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북쪽으로 6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

리는 물론 교인들과 나누었던 우정만큼 교회를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힘이 드는 하루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와보니 아내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집에 손님이 다녀갔어요” 하고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지? 판매 사원이요?”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럼 누구일까?”

“두 물론 선교사가 왔어요.”

“당신 농담을 하는거요?”

“아니어요, 소책자를 주고 갔어요.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전화 번호도 나와 있어요.”

“그럼 전화를 해 보아야겠는데, 그들이 무척 놀랄거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오드펠로즈 홀에서 지부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를 찾아 온 두 젊은이는 6주간에 걸쳐 6개의 이해하기 쉬운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물론과의 우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르는 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몇 사람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 주일날에 우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은 유쾌했으나 네 명의 아이들에게 외출 준비시키는 것만 해도 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시간을 잘못 알았습니다.

오드펠로즈 홀의 주차장으로 차를 몰

고 가는데, “늦겠어요”하고 아내가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는 편이 낫겠오”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회중들이 어느 방향으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설 때 그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게 된다면 얼마나 무안하겠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사 한분이 주차장에 나와 자신이 지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반으로 인도되었고 우리는 구도자 칸에 안내되었습니다. 그 반의 교사는 박학한 분으로 가르치는 교재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교회에 속한 지성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임을 알고 내 자신의 추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참석하여 한결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부의 꾸밈없이 소박한 분위기에서 장엄하고, 알아볼 가치가 있고, 보람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후 얼마 안되어 전에 함께 일했던 유타에 있는 다른 친구인 테니스 힐에게 편지를 띄어 이제 나도 그의 교회에 나간다고 써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확신시키려했으나 그는 나에게 책 한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리그랜드 리차즈가 저술한 기이한 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번째 이 조그마한 교회에 참석하고 왔을 때 그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조금 후에” 읽기 위해 한 쪽으로 치워

두었습니다.

세번째 일요일은 너무나 피곤해서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셨었습니까?”하고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저녁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뵙지 못해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랬습니다.” 잠시후 “우리는 6가지 토론을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곧 시작했으면 합니다.

“ 좋습니다! 내일 저녁과 매주 화요일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하여 깊은 우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신앙과 행복을 심어 준 이 젊은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었으므로, 나에게 심리학을 적용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러한 모임의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만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이나 다른 사람이 기도드리는 것은 아주 즐겨 들었으나, 존재를 확신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는데, 연사는 바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였습니다. 나는 책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사의 말을 들으러 가기에 앞서, 될 수 있는한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는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층 앞 자리를 차지해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예리한 정신으로 인해 감명을 받은 데다가 그의 성실성과 확신과 신앙때문에 더욱 크게 감

동되었습니다.

선교사와의 복음 토론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째번 토론의 이해가 될 무렵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침례받으라고 권고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토론 공과를 끝마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돼요.” 하고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같이 단순한 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오. 아내도 역시 동의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침례날짜가 결정된 것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갈 것 같습니까? “아니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는 다른 두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것입니다.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겠습니까?”

“어디지요?”

“여기에서 한 구역 떨어진 바닷가입니다.”

“바다에서요!” 하고 아내는 놀라면서 “요즈음에는 바다물이 너무 찰텐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선교사는 항상 태연 자약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갔습니다. 침례식이 끝난 후 선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번에 침례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은 존과 루이스 해치라는 아름다운 젊은 부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해치 부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

척 열심이었고 성실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인 여섯번째 토론에서 장로들은 우리에게 해치 부부가 침례받기로 해서 성 금요일(부활절 전의 금요일)인 다음 금요일에 침례받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날은 침례 받기에 이상적인 날이며, 침례를 받고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일종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충동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여섯번째 토론을 마치고 난 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버릇처럼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승낙을 하고는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폐회 기도를 마치자, 의외의 표정을 띤 선교사들은 나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기분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나는 용기를 내어, 숨을 깊이 들이쉬던 후 아내에게 금요일에 침례받겠다고 말하고 아내도 함께 침례받도록 권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라도 했거나, 플로리다주가 바닷속에 서서히 빠져들어 가기도 한듯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왜 그러오?”

“바닷물이 너무 차서 안돼요!”

“나도 아오. 그렇지만 나는 결심했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든 안하든 나는 침례를 받겠오.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오늘 저녁까지 알려주오. 내일 선교사에

게 전화해서 칩레복을 갖고 오게 해야 하나까요.”

나는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직장으로 떠났다. 그러나 아내가 하루 종일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얼마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결정했오?”

“당신 혼자만 칩레받게 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오늘 저녁 선교사에게 전화하겠오. 아이들에게도 함께 칩레받을 것인가 물어보고 집에 돌아가면 알려주오.”

위의 두 아들들은 우리와 함께 칩레받기로 찬성했습니다. (밀의 두 아들은 아직 칩레받기에는 너무 어렸읍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칩레를 받았고, 나는 물에서 나온 이후로는 훌륭한 결정을 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읍니다.

왜 나는 갑자기 칩레받기로 결심했을까? 그것은 여섯번째 토론을 공부하던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찾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나다. 또한 나는 불타는 떨기 나무만을 찾느라고 중요한 것을 잃고 있음을 깨달았읍니다. 그 대답은 내게 일어났던 단순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나다.

나는 우리가 칩레받기 전 주를 회상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또 한번 교회에 늦게 도착했읍니다. 그때 무안해 하는 우리를 에리 마클이라는 젊은이가 악수로 맞이해 주어 어색하지 않게 해주었읍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서 강한 신앙을 느끼고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신앙이었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 : 29) 나도 그러한 신앙을 갖기로 결심했읍니다.

나는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나 기적적인 개종을 갈망하고 있었으므로 성신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극적인 형태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과 만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매우 의미 심장했읍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나름대로 강하면서 도 단순한 신앙을 보여 주었읍니다. 디라이스너는 씨를 뿌렸고, 테니스 힐은 책을 보내주었고, 선교사들은 우리 집을 찾아주었고, 프레스러 지부장은 우리가 처음으로 참석한 일요일에 우리들을 기다려주었고, 리차즈 장로님은 영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고 에리 마클은 악수로 어색한 분위기를 씻어주었읍니다. 각자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자기 간증의 강한 빛을 비추어 주었읍니다. 암흑속에 있었던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모범은 “등불의 광선”(눅 11 : 36)과 같았으며, 진리의 간증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물론들은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나는 물론이 좋았읍니다. 종교적인 집단도 사실상 한 가족으로, 한 가족의 사랑과 배움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담이 되지는 않았읍니다. 우리는 자유스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암흑을 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 불을 밝혀 영원히 비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회원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또한 그러합니다. *

로버트 이 맥기, 미 공군 계약 관계관, 네 자녀의 아버지이며 처치몬드 버지니아 스테이크 장로 신권 소유자.

성신의 은사

마크 이 피터슨 장로

교회의 각 회원들은 침례반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침례”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를 일생동안 인도해 주는 거룩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고 기도로 구하면 이러한 은사를 통해 영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학교 수업이나 친구를 선택하는 문제나 매일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선교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직 미숙한 선교사였을 때 아이다호주 루퍼트에서 온 훌륭한 동반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헨리 엘베이크 장로였습니다. 우리는 동부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서 함께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니 한 여인이 우리의 노크 소리를 듣고 즉시 문을 열어주며 맞아주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대문밖에서 우물쭈물하며 기다릴 사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제게 주실책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우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려고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즉시 우리를 알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우리가 그녀의 전 가족을 구원으로 인

도할 책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우리는 물문경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와 함께 그 책에 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날 저녁에 다시 와서 그녀의 가족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그 가족은 모두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지금도 모두 충실하고 성실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20년 전에 나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가서 선교부를 둘러보고 그 도시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예배당을 헌납하라는 지명을 받고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전 해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이 예배당의 기공식에 참석하여 첫삽을 뚫었습니다. 대관장님은 다시 그곳에 돌아가 그 건물을 헌납하기를 바랐습니다만, 다른 직무에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내가 간 것입니다.

헌납식이 끝난 후 이태리 출신의 자매가 나에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청하기 전에 그녀는 오른손을 내밀고 손을 펴 보이며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기공식을 위해 이곳에 오셨을 때 나의 손바닥 안에 암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암은 점점 손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만일 내가 맥케이 대관장님의 손에 닿기만 한다면 나의 병은 나을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관장님과 인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물려들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동은 계속되었을

니다. 것처럼 강한 충동을 준 것은 성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관장을 만났고, 나의 오른 손은 붕대로 칭칭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왼손으로 악수해야 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붕대를 풀어 보니 놀랍게도 암이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 손을 장로님께 보이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년 후에 아이다호주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집회를 마치고 나자 감독 한 분이 연로하신 노모를 모시고 나를 만나러 올라 왔습니다. 나는 대회에서 말씀을 할 때 몰몬경을 인용했으므로 아직도 손에 몰몬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게 몰몬경을 달라고 하더니 책을 펴고 아무 데나 한 구절을 읽고는 책을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지난 스테이크 대회에 오신 손님은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의 한분이신 토마스 이 맥케이 장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맥케이 장로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잘 안다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로님의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고 그분께 전해주시겠습니까? 지난 스테이크 대회에 그분이 참석했을 때 내 아들은 그분을 나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나에게 병자 축복을 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나는 소경이었습

니다. 내가 이제 분명히 장로님의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고 그분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의 권세는 우리가 활용하기만 한다면 말일성도들에게 위대한 자원의 하나가 됩니다. 이 권세는 병고침을 위한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 일은 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회개하도록 권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며 인류의 영광도 또한 예지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예지에 지시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 : 7-16)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되지만, 그중 성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그 분은 신회의 일원이시며 우리가 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나 우리에게 도움과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확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언제나 보호해 주고 일생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줄 위대한 빛이 될 성신의 은사를 얻는 수단인 것입니다. *



빅터 엘 브라운 감독
판리 감독

“나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전문적인 상담자에게 가서 의논하라고 합니다. 다만 나는 감독에게 가야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십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분이 말일성도의 정신 건강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자와 감독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연설을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독은 영원한 엔다우먼트로써 성임 됩니다. 이 직분은 단지 교회의 징계 말하자면 파문 등을 받을만한 불합당성에 의해서만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름과 성임과 성별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며 성도들의 발전과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많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영적인 활동을 통제하여 그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성도들이 어떤 축복과 특권을 받기에 합당한지 결정합니다. 그는 이 지상의 모든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영원한 결혼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바로 감독입니다.

“와드의 영적인 지도자는 철공소나 소와 폐지를 기르는 농장이나 은행의 금전 출납계나 관리자의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학교의 건물 관리인 이거나 교장이거나 대학의 총장일 수도 있습니다. 감독은 청소부나 우편 배달원이나 경찰관이나, 화가나 교사나 상인이나 은퇴한 실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동시에 “그의 소유된 백성” 이라고 말했습니다. (벧전 2:9 참조)

“따라서 감독은 정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은 모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겸손과 근면과 사랑과 헌신에 얼마나 의존하느냐 하는 비례에 따라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나는 와드 회원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과 함께 의논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원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여 준 젊은 감독들의 총명과 지혜와 영감과 판단을 보고 놀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며 완전한 감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두 테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님과 같이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판장님과 같이 친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세기 이상의 생을 통하여 수천 명의 감독들을 개인적으로 알아 왔습니다. 나는 수시로 이러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권능과 힘과 위엄과 선함과 능력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부당한 행위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로 대치되는 감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은 극히 감동적입니다. 이들이 권능의 예복을 입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무리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은 모든 분야의 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모든 지식의 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뿐만 아니라 합당하고 의로운 모든 자에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

은 직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 감독은 와드를 위해,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를 위해 각각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창조주에게 의지할 때 이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샘을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학식만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감의 근원은 의원이시며 정신과 의사 이시며, 심리학자이신 주님께에서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교회의 회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감독을 훈련시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케 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그러한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감독이 주님과 일치되는 생활을 한다면 높은 곳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우리의 프로그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명: 정신적 신체적인 죄

“치료법: 극기

“치료기구: 교회

“약물: 복음

“처치: 계속적인 선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할 틈이 없게 하여, 건설적인 활동을 행함.”

김볼 대판장의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와드의 회원을 관리하는 관리 대체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감독이 거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사회 사업가나,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기타 상담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킴벌 대판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문가(정신 위생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라고 합니다. 또한 감독이 필요성을 느껴 합당한 회원을 불러 그에 응하여 공공 또는 사적인 기관에서 봉사하는 충실한 말일성도들도 있습니다.

필요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참되고 영구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나 혼란되어 있고 부모나 배우자에게 의해서 잘못 인도되며, 죄를 짓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구제 프로그램과 교회의 원칙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용하여야 함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컨대 때로는 감독의 주관하에 감독과 전문가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독과 협의하여 일하는 전문적인 협력자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두가지 중대한 문제가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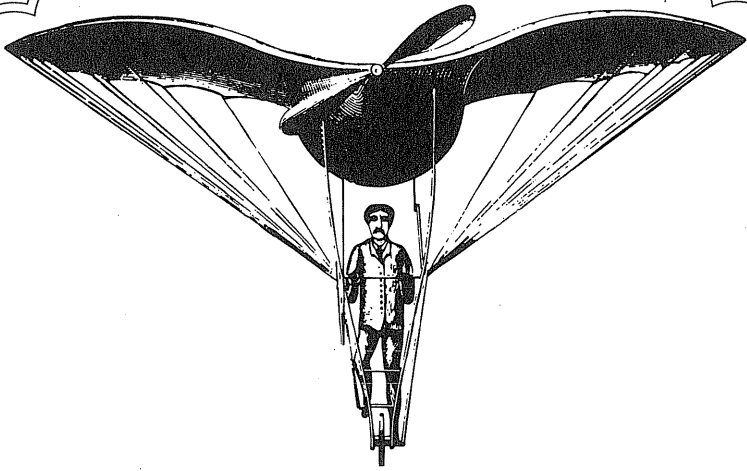
첫째, 감독으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감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감독이 성도들의 문제를 상담할 책임을 모두 전문가에게 맡겨버린다면, 그것이 비록 말일성도 사회사업 단체나 또는 다른 기관이라 해

도 감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전문가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교회에는 감독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활동 회원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 중에는 교회의 교리와 관습을 한 쪽으로 밀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 상담자는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감독을 돕는 일에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훌륭한 사회 사업 전문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기타 상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교회에 충실하며, 매우 겸손하여, 현대 정신 위생에 큰 해를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감독을 돕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유능한 상담자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이나 혹은 전문적인 상담자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향상되는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혜와, 조언과 인도와 기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의 행위, 나아가서 인생 행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세주와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



모든 것에 고장이 날 때 얼마나 잘 비행할 수 있습니까?

로버트 이 웰즈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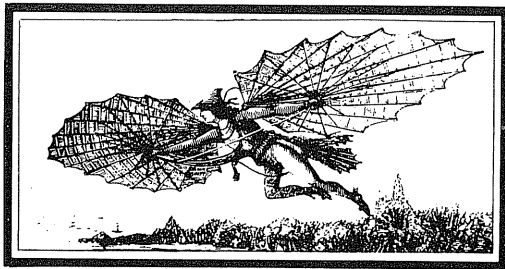
나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남미 국가에서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조종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매우 친한 친구가 나에게 엔진이 두 개 달린 그의 새로운 세스나 비행기를 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종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매우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특별히 강한 힘을 내는 엔진과 함께 정기 항로의 비행기와 똑같이 모든 무선 장치, 전자 항해 보조기, 거리 측정 장비, 전천후 비행을 위한 모든 장비와 산소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생각해 낼 수 없었으나 이렇게 많은 장비(이것은 매우 비싼 비행기였습니다.)를 생각하고는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멕시코로 가보도록 하세.”라고 말하면서 마지못해 그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의 친구는 자기 비행기를 타보라고 권했으나 그 제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열쇠 꾸러미와 조종사용 소책자를 사무실에 가져 왔는데, 그것은 내가 그의 아름다운 비행기를 때때로 타면 그가 정말로 기쁘게 여기리라는 증거였

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열쇠는 나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깊은 바다 낚시터가 있는 멕시코로 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친구는 내가 쉬는 날에는 갈 수 없었으나 혼자 갈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보험 증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의 자격에 관해 토론했으며, 내가 이전 종류의 특별한 비행기를 조종해 본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시험관과 함께 시험 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을 하여 정한 시간에 미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쿠아도르에서 받은 면허증과 세스나 310 비행기를 타고



밀립, 산맥, 사막, 국경 등을 항해한 것을 나타내는 항해 일지를 갖고 비행기 옆에서 그 시험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띄면서 뚜뚝뚜뚝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들었으며, 또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비행했는가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무 것에도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비행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모든 것에 고장이 날때 얼마나 잘 비행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리하여 다음 한 시간 동안 그는 모

든 것이 작동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비상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켜야 할 것을 껐습니다. 또한 꺼야 할 것을 켜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당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모든 것에 고장이 날 때 내가 얼마나 잘 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행기에서 나와 나의 항해 일지에 서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좋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비행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생의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알기 위해 시험받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모든 위험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충실한가를 알기 위하여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를 시험할 역경이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고와 질병이 있으며, 시험하기 위하여 유혹과 혼란이 있으며,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망과 낙담과 불행과 실패와 기타 온갖 상황이 있게 될 것을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몇 년을 보내다가는 모든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같이 여겨지고 시련의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의지할 두 가지의 중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실함으로써 얻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영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오고 싶어했습니다. (2)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전 10 : 13 참조)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은 비상 사태, 사고, 질병, 실망, 낙담, 불행, 유혹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부유한 처지입니다. 때때로 부유한 처지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호화로운 낚시배를 갖고 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유흥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한 와드에서 직책을 맡거나 합당하게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유한 처지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부를 잘 다루어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말일성도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공공 장소나 나이트 클럽이나 극장이나 연주장에서 우리의 재능을 발표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영적으로 합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재능은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연에게에서나 예술계에 서기에 충분한 만큼 강한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부간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의견 차이나 문화의 차이 또는 선천적인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사탄이 이런 질문으로 그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넌 행복하니? 다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싶지 않니 행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은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행복”의 일시적인 방해물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충실할 것을 요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정상적인 부모들 중에 많은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겪는 영적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승영한다는 목표를 잇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심대의 자유를 허락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부모의 훈육을 허락하여 자녀나 부모 또는 양쪽 모두 시험에서 실패하도록 합니다.

다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에 고장이 날 때 얼마나 잘 비행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충실함에 대한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습니까? *

오림포스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다

윌리엄 하틀리



관료 성적인 유럽 성도들은 아름다운 여객선 올림퍼스호를 탔다. 어느 사도는 그들의 여행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블란서 선교부를 관리한 존 테일러 장로는 1851년 3월초에 교회 일로 영국에 가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내어 당시 올림퍼스호를 타고 리버풀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개종자와 선교사를 포함한 여러 친지들에게 송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윌리엄 호웰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수 년전에 복음 전도를 위해 프랑스에서 선교 지역을 개척했으며, 관리 장로로서 245명의 성도들의 여행을 주선해 주었다. 테일러 장로는 여행자들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그리고 그는 올림퍼스호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성도들이 악령과 병고의 고통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이 모든 위험 속에서 그들을 보전하사, 안전한 항구로 인도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다에서의 여건이 순조로울 경우, 뉴우올리안즈까지의 항해 시간은 보통 5주일이 걸린다. 3월 4일에 떠나는 이 성도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경우 4월 중순께는 미국에 도착하여, 무서운 콜레라 전염병이 만연되는 봄과 여름이 되기 전에,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850~51년의 이민 계절에 일곱번째로 항해하는 이 불몬 이주단은 다음 일월까지는 마지막 이주단이 될 것이다. 유능한 항해사인 윌슨 선장이 올림퍼스호와 그 선원들과 성도들과 약 60명의 비회원 선객들을 진두 지휘했다.

테일러 장로가 예언한 고난은 첫날밤부터 밀어 닦기 시작했다. 갑판밑에서는 약 400명의 인원이 길이 27미터와 넓이 7미터쯤 되는 “넓은 침실”의 양쪽

에 뻥뻥이 늘어서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한 밤중에” 13살 난 소년이 자기 침상에서 미친 듯 튀어올라, 같이 여행하는 친구의 이름을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쳐 불렀다. 그 소년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누구도 그를 잠잠케 하거나 제지시킬 수 없었다. “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하고 윌슨 노웰스는 말했다. 신권의 행사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었다.

테일러 장로의 예언은 다른 면에서도 곧 성취되었다. 올림퍼스호가 무서운 아이리쉬 해로 들어갔을 때 거센 역풍이 큰 파도를 일으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목선을 때렸다. 3주일 동안 선객들은 들까불였으며 심한 배멀미를 했으며 “심한 고생을 했다.” 드디어, 날씨가 잠잠해져 모두 안도의 숨을 쉬게 되자, 선객들은 그 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윌슨 선장의 노련한 눈은, 수평선을 자세히 관찰해 보다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구름 한 점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구름은 사람의 머리만 했으나, 점점 커지더니 어마어마한 비례로 불어났다.

선장은 재빨리 선원들을 갑판위로 모아놓고, 돛을 모두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노웰스 형제와 영국의 도버에서 온 20세의 목수인 에드먼드 풀러에게 갑판에 남아서 선원들을 도와 달라고 했다. (그 후 여행 중에 풀러씨는 물론 아가씨인 아멜라이데 켈리 양과 사랑하게 되어, 교회에 가입하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결혼했다.)

계속해서 항해해 나가며, 선객들이 갑판밑으로 집결하자, 새로운 폭풍우가 그 배를 몰아쳤다. 올림퍼스호는 “술주정꾼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비틀거렸

다. “돌풍”이 불어 앞돛대가 부러져 바다 위로 떨어졌다. 여러 사람이 배 한 쪽에 걸쳐있는 부러진 돛대를 잡으려고 했으나, 도끼로 걸쳐진 곳을 잘라야만 했다.

올림퍼스호는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 한 밤중이 되도록, 그 배는 태풍에 시달리며 투쟁을 계속했다.

폭풍우가 시작될 지 두 시간 후인, 오후 8시경에는, 배 밑바닥으로 물이 4피트나 차 올라 배의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갑판위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 올라 노월스 형제와 플러씨는 바닷물에 젖겨 떠 내려가지 않으려고 펌프에 매달렸다. 시간이 갈수록 폭풍우는 격심해졌다. 그리고 올림퍼스호는 점점 물에 잠기게 되었다.

한 밤중이 되자 선장과 선원들과 갑판위에 모인 사람들은 폭풍우가 조금도 수그러들 기색이 없었으므로 맥이 빠졌다. 노월스 형제는 선장이 이등 항해사 해밀튼에게 물몬의 지도자인 호웰 장로에게 가서, “물몬의 하나님이 배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청해 보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선장은 선원들이 최선을 다 했으나 올림퍼스호가 한 시간에 30센치미터씩 가라앉고 있으므로, 폭풍우가 그치지 않으면 아침이 될 무렵에는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 항해사는 노월스 형제에게 같이 가서 물몬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했다. 또 한 차례 거센 파도가 밀어 닥치자, 그 두 사람은 승강 계단의 빗장을 열고 아래로 내려 갔다. 그들은 칩대에 누워있는 호웰 장로를 보고 선장의 애원을 전했다.

물몬 지도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리버풀을 떠나 뉴올리안즈로 가는 것이지 바다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그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윌슨 선장에게 말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해밀튼씨는 갑판위로 되돌아와 물몬의 답변을 전해 주었다.

온통 비에 젖은 노월스 형제는 갑판 밑의 뒤편벽이 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배가 흔들리는대로 열려진 트렁크와 짐 꾸러미가 굴러 다녔다. 여행자들은 제각기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도 하였다.

호웰 장로는 얼른 일어나 정장을 하고, 새로운 개종자인 윌슨 노월스를 포함한 열 두명의 형제를 그의 곁으로 불렀다. 지도자는 각 사람을 동글게 서게 하고 차례대로 주님께서 배를 구해주시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기도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을 때”하고 노월스 형제는 말했다. “배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았어요.” 심하게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올림퍼스호는 심한 감기를 앓고 나서 떠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배가 가라앉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폭풍우가 그렇게도 갑자기 멈추리라고도 생각지 못했다.

동글게 둘러섰던 형제들은 호웰 장로가 드린 기도예 진심으로 “아멘”한 후에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노월스 형제는 갑판위에서 물 푸는 작업을 하기 위해 되돌아갔다. 놀랍게도, 그는 “폭풍우가 기적처럼 그치고, 바람이 잠잠해졌으며, 저쪽에서는 큰 파도가 아직도 일고 있는데, 배가 있는 주

위에는 파도가 잔잔한 것을” 보았다. 올림퍼스호는 너무도 갑작스런 변화에 떨었던 것이다.

펌프질은 한낮까지 계속되었다. 청명한 안식일이 밝아 오자, 윌슨 선장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선객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리버풀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깨끗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윌슨 선장의 허락을 받았다.

선원들이 부러진 앞돛대를 매치하기 위해 임시 돛대를 세우려할 때, 선객들이 갑판위로 몰려 왔다. 성도들과 비회원들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선객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리버풀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깨끗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윌슨 선장의 허락을 받았다.

바로 그날, 3월 23일에 설교와 찬송을 드린 후, 칩레 의식이 베풀어졌다. 3주일의 여행 기간 중에 많은 수의 비말일성도 선객들이 개종하여 칩레 받기를 원했다. 선장의 허가로 큰 물통을 갑판위로 내 놓고, 뚜껑을 벗기고 짧은 사다리를 물통 옆과 안에 놓았다. 물통은 허리에 닿을 정도의 바다물로 채워졌다. 남, 녀 21명이 그렇게 하여 칩레 받았다. 그 다음날 개종자들은 안수를 받고, 성찬이 집행되고, 병자는 기름 축복을 받았다.

여행기간 동안의 성도들의 모범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비회원들도 성도들의 오전 10시와 오후 9시의 기도 모임과 5,6명의 형제들이 짧은 말씀을 드리는 정규 설교 모임에 참석했다. 그들은 그 모임에 영적인 은사 곧 예언, 방언을 말함, 병 고침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간증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은 물론 주간 학교에 참석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주제에 대한 장로들의 저녁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성도들과의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더욱 많은 개종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두번째 칩레식에서는 20명의 남자들이 바다물에 들어가 칩레를 받았다. 배의 중앙 수문 뚜껑을 밧줄로 매달아 대서양에 띄워 플랫폼모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스미스 보좌와 다른 사람들이 구명줄을 몸에 매고 다리를 물에 담근 채 플랫폼모음에 앉았다. 각 개종자들은 허리에 단단한 벨트를 매고 몸에는 구명줄을 맨채, 줄 사다리를 타고 플랫폼모음으로 내려왔다. 개종자가 칩레 의식을 베푸는 장로의 왼쪽에 앉으면, 그 장로는 오른 손으로는 허리의 벨트를 잡고, 왼손으로는 목 뒤의 옷을 움켜 잡는다. 개종자는 손으로 장로의 팔목을 잡는다. 그런 뒤에 그 사람은 “물밑에 잠겼다가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올림퍼스호 선객들이 4월 말경에 뉴우올리언즈에 상륙하여, 증기선 애틀랜드를 타고 세인트루이스까지 가는 동안 50명의 비회원 승객들이 개종하여 칩레를 받았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들 무리는 뿔뿔이 헤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증기선 스테이즈맨호를 타고 아이오와주의 케인즈빌을 향해 13일간의 여행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150대의 말일성도 포장 마차가 1851년도의 첫번째 서부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림퍼스호에 승선했던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말일성도의 승객의 선행에 감동을 받은 스테이즈맨호의 요리사와 선원들이 평원을 지나 유타에 있는 말일성도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배에서 내렸던 일이었다. *

서부 이동

(184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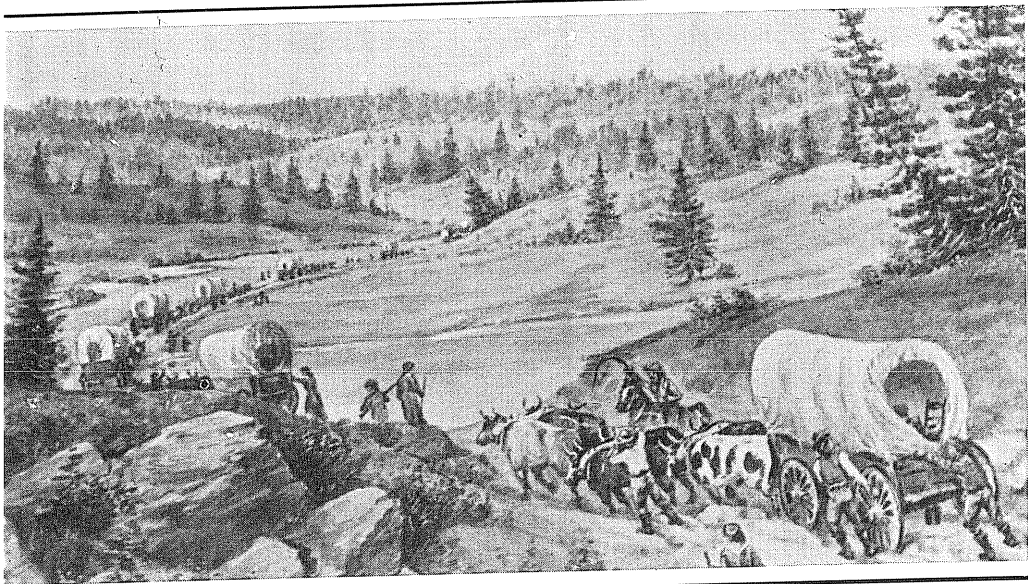
글렌 엠 레너드

1840년대 말에 1만 여명의 말일성도가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한 것은 물론 역사상 위대한 사건의 하나로 손꼽힌다. 1847년에 솔트레이크시티가 교회의 새 본부가 되어 서부로 향한 이주단에 합세한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각 곳에서 모여든 수 천명의 회원들 외에도, 유럽에서 온 개종자들이 새로운 서부의 시온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

1847년의 개척자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평원을 건너 록키 산맥의 안식처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 유명한 물몬도로를 따라서 그 이듬 해에는 약 8만 명의 말일성도가 포장 마차와 손수레 부대를 이루고 여행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된 1869년 이후에는 이주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나 19세기 말경 교회 지도자들은 이주를 금하고, 대신 여러 지역에서 교회

를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집결지”가 전 세계의 와드와 스테이크에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요셉 스미스는 록키 산맥으로의 이동을 1842년 경에 미리 예감했다. 처음에 그의 의도는 나부를 포기하지 않고 서부 산맥의 계곡과 오레곤이나 텍사스 등지에도 스테이크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성도들이 당하는 괴로움으로 이 생각을 재고하게 되었다. 예언자가 1844년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되었을 때, 그의 적대자들 중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회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보다도 큰 개인적인 간증으로 회원들이 대업을 다짐하게 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적대자들은 또한 요셉 스미스가 세워놓은 정책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십이사도 회장인 브리감 영의



쫓겨난 지도력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브리감 영의 대관장단 계승은 먼저 시드니 리그돈의 도전을 받았다. 1833년 이후 대관장단 제 1보좌로 일해 온 리그돈 부대관장은 예언자와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나 1843년 10월에, 요셉 스미스는 리그돈의 나태함과 일에 대한 반대로 보좌로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연차 대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리그돈을 지지하자, 예언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없이 리그돈을 보좌로 유입시켰다. 순교 직후에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정하기 위해 나누어 모였을 때, 리그돈 부대관장은 자신이 대관장직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8월 7일에 불만을 품은 보좌는 십이사도회와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제안을 내 놓았다. 이튿날 많은 성

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듣기 위해 옥의 집회에 참석했다. 리그돈 부대관장은 요셉 스미스의 보좌가 직계 계승자가 된다고 믿었다. 그는 “요셉의 대변인”이 되기를 원했다. 브리감 영은 교회 행정의 본질을 회중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십이사도만이 새로운 대관장을 정할 권능이 있다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사도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1835년의 신권에 대한 계시에는 십이사도에게 대관장단과 동등한 권능이 주어져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교성 107:23-24)

영 대관장과 다른 연사들이 온 종일 걸린 특별 대회를 마쳤을 때, 회중들은 십이사도회가 대관장단의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했다. 3년 후인 1847년 12월에, 십이사도회는 관리 정원회를 재조직했다. 브리감 영이 대관장이 되었고, 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좌로 선출되었다. 십이사도회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1877년에 사망한 후 3년 동안, 10년 후에 존 테일러 대관장이 사망한 후 약 2년 동안 대관장단의 역할을 맡았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십이사도회에 자신이 사망하면 즉시 대관장단을 재조직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그 이후 이 관습에 따르게 되었다.

시드니 리그돈이 1844년 8월 대회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표명한 태도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사람의 권능이 열두 사람의 권능보다 더 크다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부를 떠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스스로 교회를 조직했고 소수의 불만을 품은 회원들과 함께 파문당했다.

초기에 대관장의 자리를 주장한 다른 사람은 제임스 제이 스트랭이었다. 바로 4달전에 개종한 스트랭은 요셉 스미스 자신이 사망하기 수 주일 전에 자신을 교회의 차기 대관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랭은 예언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나, 십이사도회는 그 문서가 위조임을 밝히고,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여 이 의견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랭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적은 무리의 추종자들을 모아 미시간호의 비버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마을로 이끌고 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1856년에 한 마을 사람의 손으로 살해되기까지 그 지역에 군림했다. 라이만 화이트 장로 역시 브리감 영의 충고에 반기를 들고 몇몇 회원들을 이끌고 텍사스로 갔다.

영 대관장도 결국은 나부에서 성도들

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는 그들에게 신전을 완성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권했다. 이 일로 해서 회원들은 건축 노동자들을 위해 음식과 의복을 내 주고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등 그 이후 18개월 동안 그 지역 성도들은 요셉 스미스가 그들에게 약속한 신전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했다. 영 대관장과 십이사도회는 신전 위원회와 건축가 윌리엄 워스와 자주 모임을 갖고 건축을 재촉했다. 1845년 늦은 봄에 관석이 놓여졌다. 1846년 4월 연차 대회때까지는 건축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공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반면에, 나부에서는 다시 긴장이 일기 시작했다. 순교가 재연되게 되었다. 영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원한을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랐으나, 이미 나부 정치 세력의 반대파들은 나부 시 현장을 폐지할 것을 주 정부에 청원했다. 이 중요한 안건은 오랫동안 토의되었으나, 1845년 1월의 최종 투표 결과 물몬시에서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나부 공무원들은 곧 시민 자위대를 조직했다. 십이사도회는 일리노이스 주지사 포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시의 사방 2.5킬로 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방 행정 관청을 설립하게 했다. 이 새로운 나부 행정 조직으로 일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반대파 지방 신문들은 교회 회원들이 그 행정 조직에서 공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이러한 공개 토론이 재개되자 물몬의 재산에 대한 갖가지 만행이 시작되었다. 반 물몬인들과 배

반자에 협력하는 우리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부로 몰아 세워 결국은 일리노이스주 전 지역을 장악하기를 원했다.

반대 세력이 커지자, 십이사도회와 오십인 평의회(1844년 3월 11일에 요셉 스미스가 조직한 조직체로 하나님의 미래의 지상 정부의 핵심이 됨. 이것은 교회의 행정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행정 조직임)는 미국의 국경밖으로 대탈출할 것을 조용히 계획했다. 임시 거주지를 물색하기 위해 나부를 떠난 정찰대는 아이오와주 서부에 위치를 정했다. 워싱턴 디 씨와 주 정부 관리들과 서신 연락을 한 십이사도회는, 이 나라에서는 고립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만 성도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앞서의 결정을 확인했다.

1845년 9월에 반몰몬인들은 나부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농촌 지역의 몰몬인 집에 방화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 가족들은 그들의 방화를 막기 위해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그들의 통나무 집을 지켰다. 폭도들은 200채 이상의 집과 여러 곳의 방앗간과 수십개의 곡식 더미를 불태웠다. 그나마 우호적인 제이콥 백킨스토스 보안관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영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철수하여 나부로 이주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동정적인 시민들이 극악무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보게 되면 성도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보복하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그 해 가을과 초 겨울 사이에, 나부의 대장장이들은 다음 해 봄으로 예정된 대탈출을 위한 포장 마차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1845년 10월의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은 대이동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한 지시 사항을 들었다. 십이사도들은 지도와 서부 탐험가들의 보고서를 연구하고 서부 여행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출발 시기가 다가오자,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위한 위치 선택을 와사치 산맥의 기름진 계곡으로 좁혀갔다.

1846년 2월 4일에, 브루클린 호가 뉴욕항을 떠나 5개월간 항해한 끝에 샌프란시스코 만에 닿았다. 미국 동부에서 238명의 말일성도가 배를 타고 왔다. 사무엘 브레난에 의하여 조직된 그들은 당시 유타주에 포함된, “캘리포니아주 상부”의 멕시코 영토를 이주 지역으로 정한 사람들의 일부였다. 같은 날 나부에서는 배를 타고 차거운 미시시피강을 건너 온 첫번째 피난민들이 아이오와주의 평원을 가로지르는 포장 마차 여행을 시작하였다. 일리노이스 성도들은 3, 4월이 되기까지는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으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과 절박한 폭도의 행위에 대한 소문으로 일찍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5월 중순께 까지는 약 12,000명의 성도들이 강을 건넜으며, 그 중에는 2월에 뽕뽕 언 미시시피강을 건너 사람들도 있다. 현대판 이스라엘의 탈출이 시작된 것이다.

이주는 시작되었지만, 나부 신전 건축은 계속되었다. 칠십인 평의회 의 선임 회장인 조셉 영은 이주를 도와주고 신전을 완성하여 헌납키 위해 뒤에 남았다. 십이사도회는 1845년 말에 건물의 일부를 헌납하여 약 6,000명의 합당한 회원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주었다.

4월말쯤해서 일꾼들이 건물에 마지막 손질을 가한 후에, 윌포드 우드럽, 울

슨 하이드, 조셉 영 장로는 헌납식을 가졌다. 그런 다음 그들은 즉시로 그 건물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다른 종교 집단에 신전을 팔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1848년에 화재(방화범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로 목재로 된 부분이 타 버렸으며, 2년 후에 폭풍으로 석회석 벽이 무너졌다. 성도들은 오래 전부터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를 포기했으나 그중 제일 나중에 떠난 사람들은 폭도들이 그 도시를 공격하여 병자와 가난한 자들도 강제로 내쫓은 후인 1846년 9월에 출발한 사람들이다.

1846년에 아이오와주를 횡단한 추방

자들은 끊임없는 이주의 물결을 이루었다. 여행에 필요한 식품이나 일용품은 모아둘 수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와 북부 미주리 등지에서 목재를 자르거나 담을 쌓거나, 농사일 등의 임시 일자리를 구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브리감 영은 서부로 향하는 이주단을 군대 형식으로 편성했다. 각 단위는 50가구, 때로는 10가구로 나뉘어 지휘관의 지휘를 받았다. 각 부대의 부대장단은 행군을 감독하고, 규율을 유지하고, 물품 분배자, 호위병, 가축지기 및 가타 역원을 임명했다.

에코 캐년을 경유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오는 성도들



1846년 봄의 날씨는 습기가 많고 쌀 싹냈으며, 길은 진흙더미였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미주리강을 향해 남아이오와주를 횡단하여 여행했으며, 때때로 임시 야영지에 머물며 휴식하고 그물을 재편성했다. 아이오와주의 가든 그로브와 피스가 산에서 그들은 큰 밭을 일구어 밀이나 기타 곡물을 재배하여 계속되는 이주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 웅대한 아이오와의 손수레 여행에서, 윌리엄 클레이톤은 그가 어려서부터 영국에서 잘 부르던 옛 영국 노래에 맞추어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라는 가사를 지어 찬송가로 불렀다. 클레이톤은 그때 그의 아내 다이안사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클레이톤은 크게 기뻐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하고 그는 썼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 너의 가슴 부푸리니, 모든 것 잘 되리!”

6월 중순경에, 브리감 영의 부대는 미주리강에 닿았다. 그는 약 400명 정도의 개척자 부대를 선발하여 그들이 계속 진군하여 산을 넘어 그 해에 그레이트 베이신에서 가을 밭을 재배하기로 바랐다. 십이사도들은 서부로 가는 길, 비품, 인디안의 실태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조사했다. 그들은 미주리 강변을 점유한 인디안 요인들과 담화하여, 카운슬 블러프스 지역에 있는 인디안 땅에서 성도들을 위한 임시 취락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나룻배에 포장 마차를 실어 강을 건너기 시작했으며 선원들은 통나무를 가까운 인디안 제재소로 끌어 올려 재목을 만들었다. 블러프스에서 강기슭까지 거칠기는 하지만 길이 나 있어 강을 건너

기가 용이했다.

강의 서쪽편에 있는 한 지점에서 성도들은 현재의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인, 윈터 쿼터스로 알려진 곳에 임시 취락을 세웠다. 강 건너 동쪽편에 수십 개의 임시 야영지가 현재는 카운슬 블러프스로 알려져 있으나, 후에 케인스 빌로 알려진 곳에 세워졌다. 이러한 야영지를 세우는 일과 계절로 시기가 늦었으므로 개척자의 원정은 봄이 될 때까지 지연시키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포장마차를 나룻배에 실어 강을 건너는 일이 계속되면서, 동부에서 온 배달인들은 여러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이 추방된 이래, 교회의 대표자들은 워싱턴에서 연방 관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때까지 물론 문제는 지역적인 일이므로 연방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 당시 정부는 멕시코와 교전 중이었다. 국경 분쟁과 서부의 광대한 영토에 대한 반대 요구로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워싱턴 디씨의 교회 대변인인 제임스 씨 리틀은 정부 당국에 군대에 물자를 대주든가, 오레곤 도로에 있는 이주자들을 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나무 집을 지어줄 것을 협상했다. 정부는 모든 물론 이주를 도움기금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는 대신 서부의 군대를 위한 500명의 물론 지원병을 요청했다. 이 계획에 따라, 물론 대대가 산타페로 진군하게 되었고, 스티븐 더블류 커니 대령을 따라 캘리포니아 주로 원정의 길에 올랐다.

영 대관장은 이 요청을 캐히 수락하고 군대를 징집하기 시작했다. 어떤 성도들은 정부가 형제들을 가족과 분리시

켜 그들의 여행을 좌절시키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의 봉사가 성도들의 이주를 돕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대대원의 봉급은 가족이 서부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일년 후에 복무를 마치고 나면 총과 군복을 소유한 채 캘리포니아에서 제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브리감 영과 십이사도의 개인적인 권고로, 요청받은 500명보다 더 많은 수가 입대하였다. 7월 20일에 비물론 장교인 제임스 앨렌 대위의 지휘하에 카운슬 블러프스를 떠났는데, 그는 산타페에서 필립 세인트 조지 쿡 대위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 그 밖의 장교들은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 뽑은 사람이었다. 영 대관장은 그들이 종교적 원리에 충실하다면, 그들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것은 그 군대가 이듬해 1월 캘리포니아주의 산디아고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군대가 이미 캘리포니아 상부를 함락시켰던 것이다. 물론 대대가 싸운 유일한 “전투”는 그들이 리오그란데강 하류의 모래 계곡을 건널 때 보병을 공격한 들소떼를 퇴치시킨 것이다.

성도들이 기꺼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물몬의 충성심을 나타내 주었다. 더구나, 3,267킬로 미터에 달하는 행군은 역사상 가장 긴 행군의 하나였으며, 물몬이 포장 마차 도로를 열심히 닦아 놓은 것이 결국은 대륙 횡단철도를 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군에 입대하여 캘리포니아로 향한 사람이 모두 고생스러운 행군을 마친 것은 아니었다.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약 150명은 병이 들고 약해져 부대를 떠나,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로 가서 겨울을 보냈다. 이 사람들과 대대를 따라다니며 세탁물을 빨아 준 부인들은 1847년 초에 북쪽인 와이오밍주의 포트 라미로 이동했으며, 브리감 영의 개척자 부대를 따라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갔다. 미시시피쪽에서 온 성도들로, 역시 콜로라도에서 겨울을 보낸 부대도 새로운 물몬의 본거지에 닿는 첫 무리 속에 끼이게 되었다.

미시시피 강을 끼고 있는, 네브라스카주의 윈터 쿼터스는 통나무 집과 언덕에 굴을 판 집으로 된 작은 도시였다. 700여호의 이들 임시 거주지는 1846년 성탄절 이전에 완성되어 그 곳에서 3,500여 명의 인원이 겨울을 지냈다. 겨울 동안에, 십이사도회는 143명의 남자를 선발하여 개척자 부대를 조직했다. 3명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입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그중 한 사람은 두 자녀를 데리고 갔다. 이들 148명으로 된 무리는 73대의 포장마차에 여러 가지 씨앗과 1847~48년의 겨울 동안 그들을 지탱해 줄 충분한 물품을 싣고 길을 떠났다.

이러한 형태와 그 이후의 모든 이주단은 1847년 1월 14일에 브리감 영 대관이 받은 계시대로 조직되었다. 현재 교리와 성약의 일부 (136편)가 된 이 기록은 당시 서부로 향한 달구지 여행을 다스리는 법조문이 되었다. 그것은 아이오와주를 횡단하는 행군에서 이미 시험한 바 있는 조직안을 재확인해 주었으며,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현대판 이스라엘의 이동에서 성도들은 약속의 땅에 닿기 위해 서로 도

와야만 했다.

선발대는 4월에 달구지 여행을 시작했다. 십이사도 중 여덟 사람은 그 부대에 합세했고, 다른 두 사람은 그해의 후속 이주 부대의 앞장에 서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개척자들은 조그만 보트와 지도, 과학 기구 및 농기구 등으로 충분히 장비를 갖추었다. 플래트강 남쪽에 있는 오레곤 도로를 따라가는 이주민들과의 불편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말일성도는 강의 북쪽에 있는 초원에 별도의 도로를 만들었다.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윈터 쿼터스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에 이르는 1,600킬로미터의 여행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에게는 인디안과의 큰 충돌도 없었고 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질서정연하게 조직된 부대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내부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길을 가는 도중에 십이사도는 동부로 돌아가는 개척자나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그들이 예정한 목적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다.

부대가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른 7월 경에, 브리감 영과 다른 몇몇 사람이 고산열을 앓아 몸이 쇠약해져 잠시 뒤에 남았다. 그들이 뒤에 남아 체력을 회복하는 동안, 주력 부대는 캘리포니아 이주민들로 된 리드—도너 당원들이 지난해 여름에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전진해 나아갔다. 산을 넘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숲이 무성하게 자라 깨끗이 치워내는 작업을 하는 데 여러 시간이 소요되었다. 선발 부대는 드디어 협곡의 어구에 닿았다. 7월 21일에 올슨 프랫 장로와 에라스투스 스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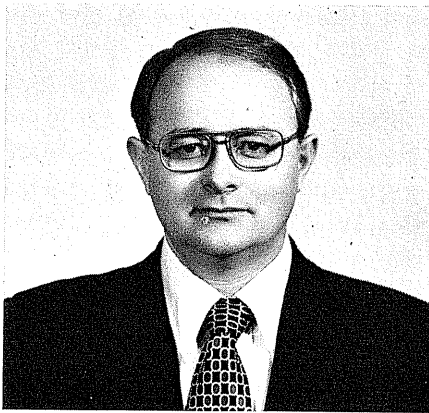
우는 길을 찾다가 처음으로 계곡과 넓은 솔트레이크 호수를 보았다. 그들 뒤를 따라 온 다른 사람들은 이튿날 계곡에 들어섰다. 그날 올슨 프랫 장로는 그 땅을 주님께 헌납하고 부하들에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파종한 후에, 마른 땅을 관개하기 위해 시티 크릭의 물길을 대주었다.

7월 24일에, 브리감 영과 소수의 병자 부대가 협곡 어구에 도착했다. “우리는 광활하고 기름진 계곡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하고 윌포드 우드럽은 일지에 기록했다. “영 대관장은 계곡이 성도들의 안식처가 된 것에 최대의 만족을 표시했으며, 그 동안의 험난한 여행이 충분히 보상받은 것으로 생각했다.”후에 우드럽 장로는 두 사람이 우드럽의 포장 마차에서 계곡을 내려다보았던 일을 회상했는데, 영 대관장은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자, 잡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수 천명의 성도들을 새로운 피난처로 수송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847년 12월까지 2,000명 이상 힘든 여행을 끝마쳤다. 영 대관장과 수백명의 인원은 그들의 가족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같은 해에 동부로 되돌아갔다. 개척자 야영대가 여행한 거리를 측정한, 윌리엄 클레이튼은 새로운 거리주행계로 그 거리를 다시 측정했으며, 1848년에는 말일성도 이주 안내서를 발간해 냈다. 이 소책자에는 야영지간의 정확한 거리를 기재하여 1847년의 개척자의 발자취를 따라나선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

“시련”

에프 레이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오늘날 유심히 한국의 교회를 관찰해 보면 건대 많은 회원들이 큰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결심이 너무나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직 강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견딜” 것이며 이러한 자들만이 강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 성도들이 서부의 황무지에 정착할 때까지 겪었던 뼈에 사무치는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힘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2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의 곤고는 “잠시뿐”이며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시뿐”인 곤고는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렸지만 그것은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언자 또는 다른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엘마서 14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온 자들 중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악한 자들만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릇된 이유 때문에, 선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도 자유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

라 사악한 자들이 그들이 원하면 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은 구세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왜 그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무런 장애도 갖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장애가 저주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교회에 속해서 찾을 수 있었던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나의 소속 와드에서 한 자녀를 잃은 어느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와드의 회원들은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때 나는 전에 이 가족에게 닥친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시련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훌륭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와 같은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궁핍한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사랑이 증가됨을 느낍니다.

우리는 고통이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고통이나 환난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생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진실로 욕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시험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했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강조해야 할 세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욕은 시련을 통해서 진실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나의 구속주는 살아 계시다는 강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